2026년 지구의 첫 빛, 키리바시에서 띄운 세계인의 새해 약속

지구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 지구에서 가장 먼저 새해 해가 떠오르는 남태평양의 섬나라 키리바시. 끝없이 펼쳐진 바다 수평선 위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며 2026년의 첫 빛이 조용히 세상을 깨운다.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지역 정론지 광주매일신문은 이 일출을 시작점으로 감비아·독일·대만·미국·볼리비아·호주 등 세계 여러 도시에서 보내온 새해 인사와 일상의 풍경을 한 지면에 담아, 광주·전남 독자들과 함께 '연결된 지구촌의 새해 아침'을 나누고자 한다. /사진제공=윤태현 IYF해외통신원(키리바시)

안데스의 새해 포도 12알에 담긴 열두 달의 약속

안데스 산맥에 둘러싸인 볼리비아의 연말은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전통이 만나는 시간이다.

라파스와 엘알토 거리에는 노란·빨간 속옷이 가득 진열되는데, 노란색은 재물운, 빨간색은 사랑을 부른다고 믿어 많은 이들이 새해 전야에 일부러 그런 색을 골라 입는다.

자정이 가까워지면 12알의 포도를 준비해 종소리마다 한 알씩 먹으며 다가올 12개월의 소원을 빈다.

누군가는 여행을, 누군가는 장사와 농사의 성공을, 또 다른 이는 가족의 건강을 떠올린다.

거리에서는 볼리비안 음악과 춤이 밤새 이어지고, 새해 아침에는 돼지고기 프리카세 수프로 속을 달래며 가족과 첫 식사를 나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한 청년은 "올해는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부모님께 빚을 갚고 싶다"는 소원을 빌어본다.

/이정은 IYF해외통신원(볼리비아 산타크루즈)

타이베이 환호·아리산 침묵, '따로 또 같이' 비는 안녕

대만은 신력(新曆)과 구력(舊曆)을 모두 기념하며, 한 해를 두 번 시작하는 독특한 활기를 띤다.

랜드마크인 타이베이 101 빌딩 주변이 화려한 카운트다운의 열기로 뜨겁다면, 산 정상은 또 다른 경건함으로 가득하다.

특히 해발 2천m가 넘는 아리산(阿里山)에 올라 운해 위로 솟아오르는 첫 일출을 보며 가족의 안녕을 비는 모습은 우리네 풍경과도 참 닮아 있다.

매서운 추위를 뚫고 산 정상에 모인 수많은 시민이 숨을 죽인 채 해를 기다리는 모습은 그 자체로 장관이다.

최근 대만 사회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경제적 실용주의와 일상의 안정을 묵묵히 유지해 왔다. 거대 담론에 매몰되기보다 개인의 삶과 취향을 존중하는 젊은 세대의 정서는 새해 첫날 카페와 거리 곳곳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난다. 건강과 취업 등 지극히 평범하지만 소중한 계획을 나누는 이들에게서 우리는 '불안을 이겨내는 일상의 힘'을 발견한다. /변태식 IYF해외통신원(대만 타이베이)

감비아의 새해 다짐 "함께, 그리고 더 나은 내일로"

서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감비아에서 새해 아침은 감비아강 위로 피어오르는 옅은 물안개와 함께 조용히 시작된다.

수도 반줄 골목마다 전날 밤 음악과 춤의 여운이 남아 있고, 청년들은 화려한 옷과 가면을 쓰고 거리로 나와 '헌팅 마스커레이드(Hunting masquerades)'라 불리는 전통 가면 행진을 이어간다.

이곳의 새해는 교회와 모스크에 모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웃과 음식을 나누며, "올 한 해도 서로를 도와가자"고 다짐하는 시간이다. 새해에도 일자리와 교육, 생활비 걱정이 여전하지만, 그대로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냐는 기대를 해본다.

반줄 시장 근처에서 작은 노점을 준비중인 한 청년은 "새해에는 작은 장사를 제대로 일으켜서 가족들 먹고사는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고 싶다. 우리나라가 더 평화롭고, 젊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원 IYF해외통신원(감비아 반줄)

정치적 갈등 넘은 '이웃의 힘'… 엘패소 시민들

미국·멕시코 국경 도시 엘패소의 새해 전야는 두 문화가 자연스럽게 뒤섞인 축제이다.

도심 산 하신토 플라자에서는 도시를 상징하는 '스타 드롭'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려, 가족 단위 인파가 몰려 라이브 공연과 조명 쇼, 푸드트럭을 즐긴다.

타코와 핫도그, 따뜻한 음료가 함께 팔리는 광장에는 영어와 스페인어가 뒤섞여 들리고, 멕시코에서 다녀온 친지들이 합류해 국경을 넘나드는 가족 모임이 이어진다.

지난 1년 미국 전역은 정치적 갈등과 국경 이슈, 물가 상승으로 흔들렸지만, 이곳 엘패소 주민들은 교회, 학교, 지역 축제를 중심으로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문화를 지키려 애썼다.

"Happy New Year, y feliz ano nuevo!"영어와 스페인어가 함께 울려 퍼지는 인사 속에서, 이들은 갈등의 도시가 아니라 서로를 붙드는 도시로 새해를 시작하고 있다.

/이소영 IYF해외통신원(미국 엘패소)

시드니의 여름, 한국어로 잇는 인연

한국에서는 '새해' 하면 매서운 추위가 떠오르지만, 이곳에서는 무엇보다 '더위'가 먼저 떠오르는 시기이다.

지역에 따라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고, 해마다 45도 가까운 폭염이 이어지기도 해 사람들은 햇볕이 가장 강한 한낮을 피해 이른 아침이나 해 질 무렵에 움직이고, 바다는 가장 인기 있는 쉼터가 된다. 반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물가에 모여 잠시 더위를 식히고, 그늘 아래서 가족·친구들과 조용히 새해를 맞는다. 이런 여름의 일상 속에서, 시드니의 IYF 기쁜소식 한글학교에서도 새 학기와 함께 새해가 시작된다.

이곳에는 나이와 국적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직장인, 학부모, 은퇴자,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한 교실에 앉아 같은 인사를 연습하며 이야기를 나눈다.

각자의 삶의 배경은 다르지만, 한 언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교실을 채우고 있다.

/이하은 IYF해외통신원(호주 시드니)

파티 대신 집으로… 독일의 '조용한 새해'

크리스마스 마켓이 문을 닫은 독일 도시는 축제의 열기를 거두고 한층 더 차분한 분위기로 접어든다. Silvester(송년의 밤)의 대형 파티보다는 가족과 집에서 라클렛(Raclette)을 나눠 먹거나, 가까운 친구들과 조용히 새해를 맞이하려는 이들이 많다. 자정 무렵 밤하늘을 수놓던 폭죽은 미세먼지와 안전 문제로 도심 내 폭죽 금지 구역이 늘어나면서 줄어들었고, 일부 도시는 화려한 공공 불꽃쇼 대신 조용한 레이저·라이트쇼를 택하고 있다.

독일의 도시들은 새해 축제에도 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방식을 고민하는 중이다. 독일의 자존심 폭스바겐의 공장 일부 폐쇄 소식은 독일인들에게 경제적 위기감을 더했다.

휘발유 가격 상승과 생활비 부담 속에서 시민들은 가까운 여행,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약 등 보다 경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선택을 늘려가고 있다.

/최세호 IYF해외통신원(독일 프랑크푸르트)